‘풍원미’ · ‘호감미’, 당도 · 수량성 높고 기능성도 풍부

풍원미

최근 우리나라 고구마 재배면적은 2만ha 전후로 안정화 추세이며, 다른 밭작물에 비해 농가소득이 높아 앞으로 재배면적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눈 건강과 항암에 효과적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 고구마 새 품종 ‘풍원미’와 ‘호감미’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풍원미’와 ‘호감미’는 당도와 수량성이 높고 기능성이 풍부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요구에 적합한 품종이다.

두 고구마는 육색이 담주황색이며, 육질은 밤고구마와 물고구마의 중간정도로 식감이 좋다. 수량은 10a당 2.4톤 정도로 많고, 덩굴쪼김병과 뿌리혹선충에 강해 재배안전성이 높다.

‘풍원미’는 4월 상순 저온기에 심어도 생육이 좋고, 덩이뿌리가 빨리 커져 8월 햇고구마 출하를 위한 조기재배용으로 알맞다.

재배면적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38ha의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씨고구마를 생산.보급한 결과, 올해는 논산, 김제, 해남, 영암 등 주요 고구마 주산지를 중심으로 700ha 이상 재배면적이 늘었다.

‘풍원미’ 재배농가는 8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해 전국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에서는 최초로 품종이름을 넣어 유통하고 있으며, 경매가격도 외래품종에 비해 10%~30% 이상 유지하고 있어 재배농가의 선호도를 높여가고 있다.

‘호감미’는 생육일수가 130일 정도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저장이 용이해 이듬해 6월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농가보급용 씨고구마 생산 및 농가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여주 등 8지역에 4.5ha 정도의 거점단지를 조성.재배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구마 소비 촉진을 위해 새 품종을 시식하면서 우수성과 영양적 가치, 가공 제품 등 다양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특별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 · 항암 효과적인 베타카로틴 함유
새 품종 풍원미 · 호감미 개발 보급 예정
덩굴쪼김병 등에 강해 재배안정성 높아
소비자 · 생산자의 요구에 적합

호감미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묻다… 국내 고구마의 미래

“증식 · 보급에 힘써 재배면적 지속적 넓혀”

각종 미네랄 · 비타민 풍부 식사대용 적절
반건조 · 음료 등 가공제품 소비 확대 전망
베타카로틴은 암세포증식억제 등 에 효능

▲ 앞으로 고구마의 소비 증가 전망은…

국내외 언론에서 고구마의 건강기능성과 효능이 소개되면서 대표적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식품선호도 조사결과,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식사를 위한 간편식으로 고구마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특히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식사대용이나 간식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는 주로 겨울에 먹는 계절식품이었으나, 최근에는 저장시설과 재배기술의 발달로 수요과 공급이 연중가능하게 됐으며, 쪄먹는 형태 외에 반건조나 음료, 제과 및 제빵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 제품으로 소비되고 있어 고구마 소비는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고구마의 생산기반과 전망은…

국내 고구마 재배면적은 2000년 1만6,000ha까지 감소했으나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해 2012년에는 2만3,000ha까지 확대됐다가 최근 3년 동안은 2만ha 전후로 안정화 추세이다.

최근 고구마 주산지역의 전문재배 농가는 10ha 이상 대규모 면적 재배로, 작업단계별 농기계, 대형 저장고, 세척 및 선별기 등을 갖추고 상업농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산지역은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여주, 이천, 충남 논산, 당진, 충북 충주 , 전북 익산, 김제, 고창, 전남 해남, 영암, 무안 등 이다.

도매시장에서 가격등급은 품종, 외관상품성이 좌우하기 때문에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바이러스 무병묘 재배 혹은 토양관리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고구마 재배는 다른 밭작물에 비해 초기 자본 투자(씨고구마, 묘 구입, 묘상하우스 등)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면적 확대는 어려움이 있으나 소비 증가와 더불어 소규모 재배농가는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풍원미’와 ‘호감미’가 기존 품종과 다른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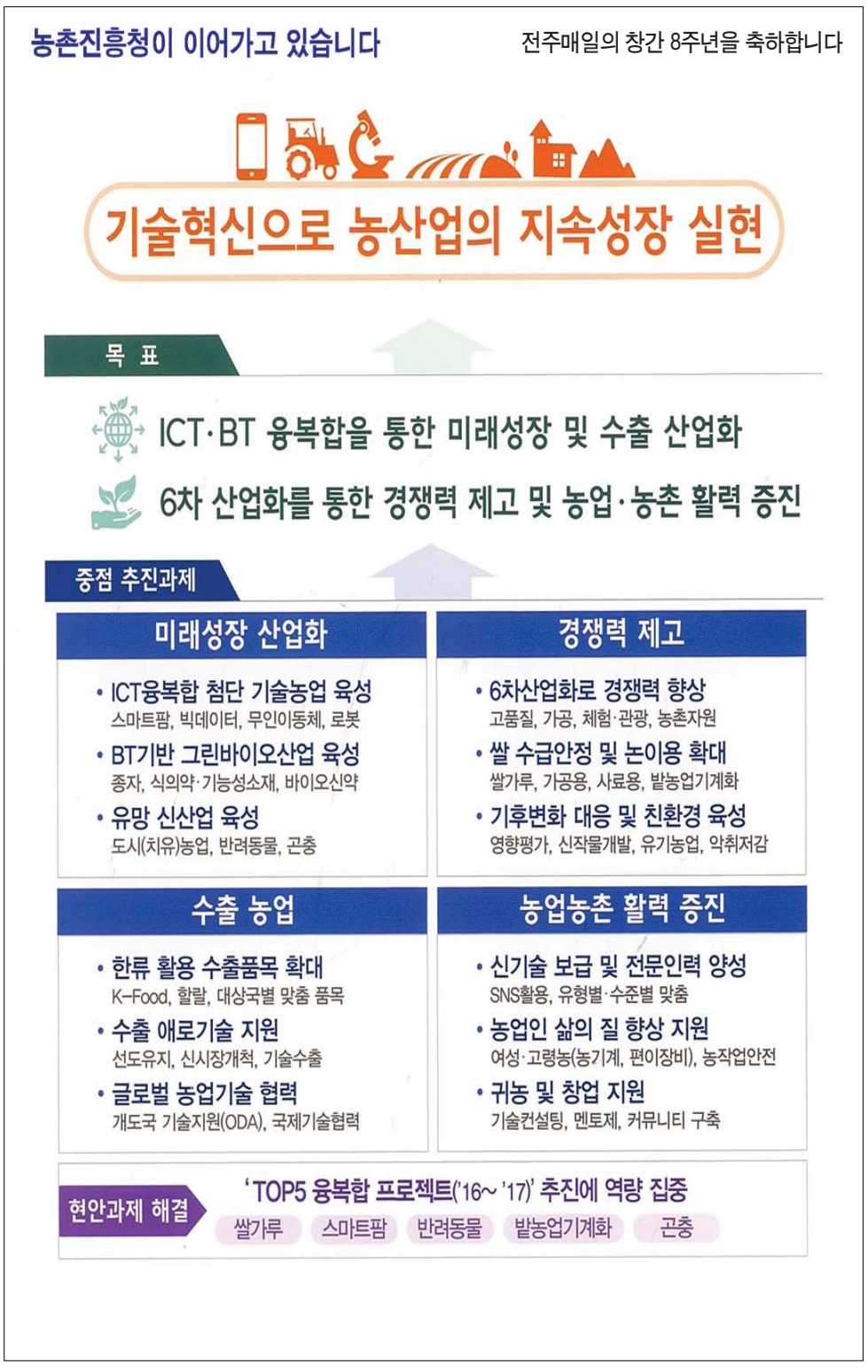
두 고구마는 속색깔이 담주황색이며 베타카로틴을 함유한 건강기능성 고구마라는 점이며, 이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거나, 암세포증식억제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성분이다.

풍원미는 4월 조기재배 시 저온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덩굴쪼김병에 강하며, 덩이뿌리의 비대가 빨라 심은 뒤 100일~110일에도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 등 재배안전성이 높은 품종이다.

외래품종인 일명 ‘호박고구마’ 품종은 덩굴쪼김병 등 병해에 약해 고구마의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새 품종 ‘호감미’는 ‘호박고구마’의 특성과 맛을 유지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인 덩굴쪼김병에 강한 특징이 있다.

특히 당도가 높고 육질이 중간~점질형으로 식미가 우수하며 수량성도 높아 장기저장용으로 소비자와 농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품종이다.

농촌진흥청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새 품종 ‘풍원미’와 ‘호감미’는 재배농가의 만족도와 소비자의 기호를 모두 충족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씨고구마 증식과 보급에 힘써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